

3/26/17

설교 제목: 인간의 생사화복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 욥기 23:1-17

- (욥 23: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욥 23: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 (욥 23: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 (욥 23: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 (욥 23: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 (욥 23: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 (욥 23: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 (욥 23: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 (욥 23: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 (욥 23: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 (욥 23: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 (욥 23: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 (욥 23: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절관주** 살전 3:3
- (욥 23: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 (욥 23: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 (욥 23: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의 세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욥에게 그가 악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이제 세 번째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하고 있지만 첫 번째 공박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공박에서나 이번 세 번째 공박에서나 별다른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그들의 공박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악한 길을 걸었으므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네가 의롭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너는 악한 길을 걸었음에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공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겠어? 그러니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너를 환란 가운데서 건지실 거야.”

세 번째 돌아가는 공박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욥 22: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욥 22: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 22: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 22: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 22: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욥 22: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였을 때에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자신의 단순한 논리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악한 행동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있다고 욥을 꾸짖습니다.

(욥 22: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욥 22: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욥 22:14) 뻗뻗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욥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데 욥은 마치 하나님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 22: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욥 22: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욥 22: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욥 22: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욥 22: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 22: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욥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 22: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욥 22: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 22: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 22: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구구절절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복음적인 말입니다.

욥기가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시다시피 부분이 복음적으로 틀리지 않고 오히려 옳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친구들의 말이 보편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 말들이 욥에게 향해 하여질 때는 맞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입니다.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보편적인 진리일지라도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적극적으로 항변합니다.

본문인 23 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4 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직접 면담을 갈망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에 대해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23 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텐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 합니다.

24 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모든 압제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압제로부터 해방될 그 때를 기다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욥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3 장에서는 자신의 문제에 국한해 생각을 하던 욥이 24 장에 넘어가면서 자신처럼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23 장만 가지고 말씀 나눌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해 엘리바스 본인에게 직접 응답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독백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욥 23: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 23: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아, 내가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찾아 가서 그분 앞에서 나의 사정을 다 아뢰고 내가 받는 고난의 부당함을 알리련만....”

욥은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직접 들고 가서 변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 23: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욥 23: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 23: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sup>10</sup>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반갑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 아주 친근한 구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하시는 욥기 중 가장 유명한 구절로 욥기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한국 성도들에게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다면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나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의도에 연유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나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연단으로 보고 이 연단을 잘 참아내고 극복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련'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나 연단을 나타내는 단어 'discipline'이 아니고 'test' 'examine'입니다.

'discipline'은 미래를 기약하며 현재를 힘들게 견디어 내는 것을 뜻하고 'test' 'examine'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내가 걸어온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밀히 조사해 보면 내가 정말 순금이라고 평가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 23: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 23: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정한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있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탄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 하셔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한 고난을 아시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도 간절히 뵈기를 위하여 찾으려 했던 하나님을 결국 찾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욥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 23: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 23: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 23: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욥의 결백도 아시고 욥이 받는 고난의 부당함도 아십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 죄없는 욥을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욥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하나의 인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걱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